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

특별상 (관음종총무원장상)

박길복 (제주시 용담3동)

그리운 님 황금의 동상 <하>

그림 · 김흥인

참 가르침은 항상 깨어있는 지혜속에…
나를 힘겹게 만든 일 모두가 '진리의 화신'

차량 통제에 험난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오직 일념으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는 그 기쁨만으로 두려움도 몰랐다. 아침 10시부처 새벽 1시까지 가게일을 마친 후 깨끗이 몸단장하고 2시에 출발 3시에 남쪽나라에 도착하여 여러 선방 스님들과 신심이 가득한 불자들과의 용맹스러운 기도. 6시에 마치고 돌아오는 길의 아름다움은 너무나 황홀했고 엄마 노루 애기 노루의 산책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산바람에 인사를 나누기를 하안거 동안거 3차례를 지냈다.

어느 새 딸이 불심을 키웠고 19송이 장미 꽃다발을 정성껏 만들어 부처님께, 선방 스님들께 마음의 꽃 공양을 올렸다. 노랑 장미 빨강장미 분홍 장미….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쳐 주신 19세의 불심은 법당 가득히 향기를 그득 피워올렸다.

깨달음의 의미를 두고 선방 스님들과 함께 축하받고 축하해 드리면서 동안거 결제는 그렇게 아름답게 회향됐다. 그 해 겨울과 여름은 부처님 세계에서 행복했다. 인과로 맺어진 딸과의 업을 참회와 수행으로써 얼음이 녹듯이 녹아내렸다.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엎드려 절을 올리고 어리고 예쁜 나의 딸은 모든 인연을 끊고 부처님 품 안으로…. 정든 딸 아이의 방을 열어 보는 두려움과 생각까지도 끊어야 하는 어머니의 끈끈한 모성애를 떨칠 수 없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발자국마다 눈물이 흘러 견딜 수 없었다. 그 고독함과 모진 인연을 끊는 방법은 어머니로서 수행정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만이 어머니로서의 행임을 깨달아 고통 속에서 또다시 재발심을 하게 했다. 초발심을 잃지 않고 행자 스님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일체 중생을 위해 지혜와 덕을 갖춘 스승이 되기를 간절히 발원하며 25km의 도보 대장정에 막을 올리게 되었다. 물러남이 없는 사투는 불도에 대한 의지며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었고 일념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가르침과 가피를 주고 있다는 것을 뼈 속 깊이 사무치게 느꼈다. 불법의 위대함에 합장하여 귀의함은 오늘도 한결같은 소원이다. 그런 희열과 환희의 뒤안길에는 다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병마로써 겸손과 하심을 가르쳐주기 위함인지 희귀한 병으로 육신의 고통과 수억의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모른 채 오직 일념으로 오늘도 내일도 부처님과 함께….

가족의 안녕과 공주와의 인연에 업을 녹이는 대발원은 오늘도 쉬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방황의 끝에서 생사의 귀로에서 헤매었다. 그럴 때 한 스님의 도움을 받게 됐고 너무나 감사했다.

그러나 인연에 도리를 할 여유가 없는 터라 그리고 나의 진리에 대한 애착 때문에 어느 누구와의 인연도 맺지 않기로 한 것은 내가 세운 첫째 덕목이었다. 남편과 딸, 아들 이외에는 나의 관리에 철저하게 칼을 뽑은 상태라 스님께서 가까이 오는 친절에 대하여 냉소적이었다. 가난한 불자이니 공양을 대접할 여력도 없고….

그러나 그 분은 나의 딸애를 위한 걱정까지도 서슴치 않았다. 적극적인 친절로 다가옴에 속수무책…. 가는 인연 막지 말고 오는 인연 거절 말라는 이치에 순응해 왔을 뿐이었다. 그러다보니 그 분의 어려운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동정이 갔다. 스님들 세계도 비정하고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으나 스님 세계를 잘 모르는 나로서는 그저 스님의 비참한 이야기를 순수한 마음으로 이해했을 뿐이었다.

'방 한 칸만 있으면…10평정도 조립식 건물이라도… 컨테이너 집이라도….'

슬픈 사연이었다. 물질에도 욕심이 없고 무소유로 살고자 하며 노중 객사각오로 수행하는 스님. 자급자족하면서 그림자없이 살고자 하는, 그래서 훌륭하고 청정한 스님이구나. 재가불자로서 한마음 일으키고 남은 생애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찾고 있을 때라 번거로움이 없는 마음을 내기로 했다. 그리고 자식을 둔 어머니로서 감사의 회향에 일환으로서 포교 민박과 사찰음식을 통한 대중들에게 불교의 깊은 의미를 심어주는 작업에 큰 뜻을 세워 추진하게 됐다. 그러나 그 한마음 냄이 지금 나에게는 피눈물과 통곡을 주었다. 초심은 간 곳이 없고 정신적인 충격과 부처님만을 믿어야 하는 비정한 철학을 받아들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다.

그동안 가르침대로 순수하게 살아야 한다는 스님들의 한결같은 법문대로 금생에 바른 습을 물들이는 작업을 소홀함이 없이 정진만으로 일관된 삶을 보냈다. 그러나 그 혹독한 가르침은 진리에 정성껏 가꾸어 온 정서를 잔인하게 할퀴고 갔으며, 은혜도 모르고 부끄러워 할 줄도 모르는 비인격자의 행위까지도 가르침으로 배워야 하는 오늘의 불교계의 현실에 소리없는 항변으로 몸부림치고 있다.

과연 종교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가르치며 부처님의 가사와 장삼을 수호하게 함이거늘, 인격자도 비인격자도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용기있게 전하는 가르침은 비겁하게도 그 어디에서도 없었다. 용기있는 스승은 없고 수수방관함은 물론 오히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자신들의 야심을 채우기 위한 비인격자 같은 스승들의 의식을 공유케 함은 장차 한국 불교의 의식이 어디로 흘러 갈 것인가는 자명한 일이 아닐까? 뒤늦게 접한 불교는 거침없이 달려드는 파도의 포말처럼 나의 작은 가슴을 맹렬히 공격해 왔고 어린 나의 감성으로 맞이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워 주저앉아 버리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자체가 진리의 화신이었고 이치였음을 피눈물과 원망이 지혜와 용기로 나의 의식들을 다시 승천시키고 있음에 합장 올리게 한다.

다음 생을 반드시 동진 출가 대발원을 세워 오늘도 세파 속에서 병마와 투병, 경제적인 위기와 싸우는 어머니. 판단과 의식이 희미해졌지만 오직 부처님께 일념으로 기도정진하며 이 땅에서 버티고 있다.

신성함이 음지에서 썩어감을 모두 공감하면서 그 상처를 도려내는 대승의 덕목은 그 어디에 가서 알아볼까나. 신성한 진리 앞에서 순수한 양심들을 기만하고 군림하는 소승에서의 탈피를 통해 말세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이 사회를 종교만이 바로 세울 수 있고, 그것을 바르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스님들의 본분임을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합장 기원한다. 우리 재가불자들도 이 사바세계 시시비비 아우성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불사를 일으키는 것이 본분이며 책임있는 행이라 생각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도 가까이도 있지 않으며 자신의 깨어있는 지혜 속에 있는 것이지 가사장삼 속에 있는 것이 아님을 어서 깨우쳐, 부처님의 가슴에서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도리이며 순리일 것이다.

우리 재가불자들은 혹독한 수행만이 진리와 이치며 생활임을 깊이 깨우쳐, 현혹되는 의식에 호도되지 말고 자기 성찰에 수행의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722-4162

릴레이 수행일기 <상>

김철규
드림위즈 솔루션개발팀장

'나' 찾으려는 본능으로 명상에 심취
'나를 괴롭히는 것은 사념' 깨우쳐

느낌을 지켜보면 사라지기 까지가 고통스러운것 아닌가!

그래서 그 고통이 해소되는 대로 몸과 마음은 서둘러 해결책을 찾는다. 몸(담배)이 원할 때 마음을 동원하면 더 중첩된 고통이 따르니, 그냥 피워 무는 것이다.

대체로 고통은 그 고통이 가진 고유의 특성, 종류, 방식에 따라서 저절로 사라지기 까지 시간도 고유성에 포함 되어 있는 것 같다.

커피 한 잔을 책상위에 놓고 간간히 느낌이 오는 동안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 어느새 잔이 비워져 있다. 이것을 채우려, 커피와 더운 물이 있는 곳까지 가야 하는 상황. 입속에 뭔가를 채워서 갈증이나 커피의 중독성을 따라가야 하는 느낌의 상황에 닥친 것이다.

순간. 이건 느낌이다. 어쨌거나 힘들지만 느낌이라고 판정내렸다. 이 느낌과 대치하는 동안은 고통이다. 이제 이 느낌이 동반한 고통에는 사라지기까지의 주어진 시간이 있다. 극단적으로는 이별의 아픔처럼 그토록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만, 순간적으로 못 견디게 고통스럽다. 조금씩 이 느낌이 일으킨 고통은 체념처럼 익어가고 있다.

더 적극적인 삶이 있다. 고통을 동반하는 그 느낌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 버리는 것이다.

담배를 피워 물고 싶은 감정(사실 담배는 오랜 세월 피우다 보니 감정까지 동반한다)이 솟아(담배는 강력한 충동이다) 오를 때, 사띠(마음챙김)를 확실히 확인하는 기회로 삼는다던가, 뭔가 창의적인 발상으로 전환하는 강력한 자기 암시의 기회로 삼는다. 사실 그런 경험이 있었다, 하루도 쉼없이 아플 때나 기쁠 때 긴장될 때나 18년간 피워온 이 애물을 세상에 10개월을 끊은 적이 있다. 일단, 경험이 있으니 자신감이 생긴다.

30대 중반에 나는 나를 다시 찾으려는 본능적인 가려움에 견딜 수가 없었다. 잠을 자다가 옆에 누운 아내가 깰까봐 좌선을 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사춘기 때는 어떻게 그런 기특한 섭성을 가졌었는지, 머리가 복잡할 땐 늘 좌선이나 어설픈 사마타 명상법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한때는 화두를 놓지 않고 잠들기 까지 스무고개 넘기도 꽤나 했던 것 같다.

위빠사나를 접하게 된 것은 2003년 8월 아눌라스님의 <쏟아지는 햇볕> 때문이었다. 이때 처음으로 불교에 대한 막연한 교리를 접하게 된 것이다. 종교와 관련해서 기억나는 것은 어릴 때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 화면이 자주 떠오른다. 지금도 집안에는 기독교가 뿌리깊다. 아니 심각한 기독교 집안이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면 끝이 없을것 같다.

위빠사나는 부처님의 초기경전이라고 최근에 스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수행의 원리도 알게 되었다. 서태지의 93년도 힛트 곡의 가사중 "환상 속에 아직도 그대는 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요!"에서도 엿볼 수 있는 '생각은 질병'이란 사실 말이다.

나는 아눌라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비로소 알게되었다. 사념의 확산. 암흑 속에서 그토록 내가 의지하고 키워온, 지금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사념이라는 것.

이제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느낌은 사라졌다. 그대신 한가지 의문이 남았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커피를 마시는 느낌을 온갖 상카라(SanKhara: 맹목적인 반응)가 대신했다는 것.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느낌이 희석되어 가면서, 글쓰는 동안 머리 속의 생각들을 옮겨 적고 있었던 것이다. <계속>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책방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 3만여 불교서적의 검색 및 주문이 클릭 한번으로 뚝딱!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 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도서주문
yosiamun.com
Tel: 02-737-0695 Fax : 02-737-0696 < 법공양 정성껏 상담합니다>